

Sermon: Human Cloning

■ 오늘의 본문말씀 : 시편 100:3, 요한계시록 14:7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Everyone is welcome to worship with Incheon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As most of you know, Miss Quynh received Jesus as her personal Saviour and Lord last Sunday.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처럼, 퀴 양이 지난 주 일요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Praise the Lord for that! 주님을 찬양합니다!

Please pray for her that she would grow well spiritually after she goes back to Vietnam. 그녀가 베트남에 돌아간 후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Today's main verses are Psalm 100:3 and Revelation 14:7.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시편 100:3과 요한계시록 14:7입니다.

『Psalms 100:3』³ Know ye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that] hath made us, and not we ourselve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시편 100:3』³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Revelation 14:7』⁷ Saying with a loud voice, Fear God, and give glory to him; for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and worship him that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the fountains of waters.

『요한계시록 14:7』⁷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1 Introduction 서론

A couple of months ago, I received a message from a Beijing University student as follows: 몇 달 전에 저는 북경대 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Professor Tchah, I read a report in a newspaper this morning that said, American researchers made an artificial life form which enables self-breeding. (번식 가능한 인공생명체) 차교수님. 오늘 아침 신문에서 미국과학자들이 번식 가능한 인공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Would you tell me the biblical point of view on creation of life by humans? 인간에 의한 생명의 창조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he report he read has a long title: “The birth of an artificial life form which enables self-breeding. So, mystery of life will be disclosed.” 그가 읽은 기사는 긴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번식 가능한 인공생명체의 탄생. 생명의 신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Actually it introduces and explains the article entitled “Genetic requirements for cell division in a genomically minimal cell” which was published by the world-famous journal “Cell.” 사실 그 기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 “셀”에 게재된 “最小限의 遺傳體를 지닌 合成 細胞에서 細胞 分裂을 위한 遺傳的 必要條件”라는 논문을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article shows that Artificial life made in laboratory can grow and divide like natural bacteria. 이 기사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공생명체가 천연박테리아처럼 분열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rictly speaking, this is not a creation which was created from nothing as we see in Genesis chapter 1.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무에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닙니다.

It is just another bacteria modified by biotechnology. 그것은 생명공학으로 변형된 또 다른 박테리아입니다.

Nevertheless, many are interested in this article,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because they think that the conquest of disease would be possible, 그 이유는 이제 질병의 정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and also that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is now much closer to becoming a reality. 또한 인간복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titled “Human Cloning” in order to illuminate this age which seeks immortality through biotechnology. 따라서 저는 생명공학을 통해 불멸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조명하기 위해서 “인간복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I earnest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 morning would discern this age and come closer to you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2 Life 생명

Before we get started to discuss the cloning of life, including human cloning, I think, we have to establish the definition of life or living thing. 인간복제를 포함한 생명복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생명 혹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ccording to Medical Dictionary, it is defined as follows: 의학사전에 따르면 생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Vitality, the essential condition of being alive; the state of existence characterized by such functions as metabolism, growth, reproduction, adaptation, and response to stimuli. 생명체의 필수조건이 생기; 신진대사, 성장, 재생, 적응, 자극에의 반응
2. Living organisms such as animals and plants. 동물과 식물과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

So, bacteria including a genomically minimal cell mentioned above, must belong to lif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최소유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박테리아는 생명에 속해야 합니다.

However, this definition of life is not compatible with the Bible, 하지만, 이 생명의 정의는 성경과 양립되지 않습니다.

because God says that life exists only in ‘the moving creature’ that is the animal.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은 동물인 “움직이는 창조물” 안에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Let’s read Genesis 1:20, 24 & 30. 창세기 1:20, 24 & 30절을 읽어봅시다.

『Genesis 1:20』²⁰ And God said, Let the waters bring forth abundantly the moving creature that hath life, and fowl [that] may fly above the earth in the open firmament of heaven.

『창세기 1:20』²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Genesis 1:24』²⁴ And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 after his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 and beast of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it was so.

『창세기 1:24』²⁴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Genesis 1:30』³⁰ And to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to every fowl of the air, and to every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wherein [there is] life, [I have given] every green herb for meat: and it was so.

『창세기 1:30』³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As such, the Bible clearly declares that only animals are living things.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동물 만을 살아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This brings up the question. 이것은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Why did not God define plants as living things, putting bacteria aside, even though He created them before animals?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였음에도, 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박테리아를 제쳐 놓았을까요?

Let's read Genesis 9:4-6 and Leviticus 17:11 & 14. 창세기 9:4-6과 레위기 17:11 & 14절을 읽어봅시다.

『Genesis 9:4-6』⁴ *But flesh with the life thereof, [which is] the blood thereof, shall ye not eat. 5 And surely your blood of your lives will I require; at the hand of every beast will I require it, and at the hand of man; at the hand of every man's brother will I require the life of man. 6 Whoso sheddeth man's blood,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 for in the image of God made he man.*

『창세기 9:4-6』⁴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⁵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⁶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게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Leviticus 17:11』¹¹ *For the life of the flesh [is] in the blood: and I have given it to you upon the altar to make an atonement for your souls: for it [is] the blood [that] maketh an atonement for the soul.*

『레위기 17:11』¹¹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Leviticus 17:14』¹⁴ *For [it is] the life of all flesh; the blood of it [is] for the life thereof: therefore I said unto the children of Israel, Ye shall eat the blood of no manner of flesh: for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whosoever eateth it shall be cut off.*

『레위기 17:14』¹⁴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As such, plants which were created before animals, are NOT LIVING THINGS, BECAUSE THEY DO NOT HAVE BLOOD. 이처럼, 동물보다 먼저 창조된 식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t this chance, in order for you to know the importance of the blood, I would like to ask you to listen to my preaching entitled "The Precious Blood." 이 자리를 빌어, 피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의 제 설교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Anyhow, God gave life to Adam and Eve by creating them in His image and after His likeness, as Genesis 1:26 says,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6절은 말합니다,

『Genesis 1:26』²⁶ *And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and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창세기 1:26』²⁶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So, every life of all humans who have existed on the earth has come from God, as Luke 3:38 says, 그래서 지구 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3: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Luke 3:38』³⁸ *Which was [the son] of Enos, which was [the son] of Seth, which was [the son] of Adam, which was [the son] of God.*

『누가복음 3:38』³⁸ 계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However, unlike Adam, his descendants have been born in a spiritually dead state due to his fall. 하지만 아담과는 다르게,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So although they have traces of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hey have a finite life in line with the image and likeness of the fallen Adam, as Genesis 5:3 says,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있지만,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유한한 생명을 갖습니다.

『Genesis 5:3』³ *And Adam lived an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begat [a son] i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and called his name Seth:*

『창세기 5:3』³ ¶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Then, God began His ministry of salvation based on love and grace for mankind who had lost eternal life. 그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God personally came to the spiritually dead men and proclaimed the good news (the Gospel) to save people, as Genesis 3:15 says,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15절은 말합니다.

『Genesis 3:15』¹⁵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창세기 3:15』¹⁵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According to this protoevangelium 原型福音, Jesus Christ came to this earth as the seed of a woman and accomplished our salvation by shedding of His divine, sinless and incorruptible blood on the cross and rising from the dead. 원형복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신성한, 죄 없는, 부패하지 않은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Therefore, anyone who accepts Jesus as his or her Savior can have “resurrection life,” that is, “everlasting life,” as John 3:16 says,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요한복음 3:16절 말씀처럼 누구나 “부활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John 3:16』¹⁶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16』¹⁶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 Humanism 인본주의

However, human beings have not tried to obtain eternal life by God’s method, but have been constantly seeking it IN THEIR OWN WAY.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생명을 추구해 왔습니다.

In other words, they have been attempting to “never die” through RELIGION, not the Gospel.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복음이 아닌 종교를 통해 “불멸”을 시도해 왔습니다.

Galatians 1:11-14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spel and religion. 갈라디아서 1:11-14절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Galatians 1:11-14』¹¹ *But I certify you, brethren,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is not after man.* ¹² *For I neither received it of man, neither was I taught [it],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¹³ *For ye have heard of my conversation in time past in the Jews’ religion, how that beyond measur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and wasted it:* ¹⁴ *And profited in the Jews’ religion above many my equals in mine own nation, being more exceedingly zealous of the traditions of my fathers.*

『갈라디아서 1:11-14』¹¹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아니하였느니라. ¹²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¹³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해를 끼쳤고 ¹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As such, religion begins with man, but the Gospel begins with God, 이처럼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Here, I would like to more mention the difference between Religion and the Gospel.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조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In Religion, “If I obey, I’m accepted.” 종교에서는, “내가 순종하면, 받아들여진다.”

However, in the Gospel, “I’m accepted, so I obey.” 그러나, 복음에서는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In Religion, "If I'm good, God will love me." 종교에서는, "내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However, in the Gospel, "I'm bad and Jesus loves bad people." 하지만, 복음에서는 "나는 나쁘고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Religion proclaims, "All people are good and bad." 종교는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좋고 나쁘다."

However, the Gospel proclaims, "All people are repentant or not." 하지만, 복음은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은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

In Religion "The focus is on what I do or don't do." 종교에서는 "촛점이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가에 있다."

However, in the Gospel "The focus is on what Jesus did." 하지만, 복음에서는 "촛점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있다."

Religion produces pride and despair. 종교는 자만심과 절망을 낳습니다.

However, the Gospel produces humility and confidence. 하지만, 복음은 겸손과 확신을 낳습니다.

In Religion "I am motivated by FEAR." 종교에서는 "나는 두려움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However, in the Gospel "I am motivated by LOVE." 하지만, 복음에서는 "나는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Therefore, religion is never compatible with the Gospel. 그러므로, 종교는 결코 복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If you look at the process of building the Tower of Babel in Babylon, which was the origin of all religions except Judaism, you can know that the humanism of religion is the exact opposite of God's method that is the Gospel. 유대주의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근원인 바빌론의 바벨탑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 종교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 after Noah's flood, people journeyed from the east until they found a plain in the land of Shinar and dwelt there. (Genesis 11:2)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발견할 때 까지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거기서 거했습니다. (창세기 11:2)

Then, they disobeyed God's command to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Genesis 9:1) 그 때, 그들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창세기 9:1)

and they built a city and a tower called Babel to give glory to themselves and to avoid being scattered all over the earth, as Genesis 11:4 says, 도시를 만들고 바벨이라 불리는 탑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4절입니다,

『Genesis 11:4』⁴ And they said, Go to, let us build us a city and a tower, whose top [may reach] unto heaven; and let us make us a name, lest we be scattered abroad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창세기 11:4』⁴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By the way, this Babylonian methodology to disobey and oppose God, spread all over the world as people were scattered after their language was confounded, as Genesis 11:9 says, 그런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반대하는 이 바빌론의 방법론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Genesis 11:9』⁹ Therefore is the name of it called Babel; because the LORD did there confound the language of all the earth: and from thence did the LORD scatter them abroad upon the face of all the earth.

『창세기 11:9』⁹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Thus, the consciousness that 'Godhead' could be made by 'art and man's device' became widespread among all mankind. (Acts 17:29) 그래서, "인간의 솜씨와 고안물"에 의해 신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념이 모든 인류 사이에 넓게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17:29)

And this religious method of humanism to attempt to 'never die' has been replaced by 'human cloning' in the name of therapeutic cloning. 그리고 불멸을 추구하는 이 인본주의라는 종교적 방법은 치료복제라는 이름으로 "인간복제"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After all, human cloning is a kind of religious humanism to believe and put into practice what the Devil said in the garden of Eden, as Genesis 3:4 says, 결국, 인간복제는 창세기 3:4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에덴동산

에서 한 말을 믿고 실천하는 일종의 종교적 인본주의입니다.

『Genesis 3:4』⁴ *And the serpent said unto the woman, Ye shall not surely die:*

『창세기 3:4』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4 Duplication 복제

As we have already seen so far, human cloning is a very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 지금까지 본 것 처럼, 인간복제는 아주 종교적이며 영적인 문제입니다.

So, a frequent question is whether a cloned human being, assuming that human cloning is one day successful, would have a soul. 그래서 인간복제가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복제된 인간이 혼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Genesis 2:7』⁷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창세기 2:7』⁷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Here is the description of God creating a living, human soul.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혼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Souls are what we are, not what we have. (1 Corinthians 15:45) 혼은 우리가 누구인가 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45)

The question is what kind of living soul would be created by human cloning? 문제는 인간복제에 의해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혼이 창조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By the way, human cloning is not the concept of simply cloning body in a human composed of spirit, soul, and body, as 1 Thessalonians 5:23b says, 그런데, 인간이 영, 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복제는 단순히 육체를 복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23b는 말합니다.

『1 Thessalonians 5:23b』²³ ... *and [I pray God]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데살로니가전서 5:23b』²³ ...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So, human cloning is not the same as animal cloning, because animals do not have souls unlike humans. 그래서, 인간복제는 동물복제와 같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This fact is seen in the specific details of how the Lord made the latter end of Job more blessed than his beginning. 이 사실은 주님께서 욥의 마지막을 처음보다 어떻게 더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Let's read Job 42:10. 욥기 42:10절을 읽어봅시다.

『Job 42:10』¹⁰ *And the LORD turned the captivity of Job, when he prayed for his friends: also the LORD gave Job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욥기 42:10』¹⁰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욥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시므로

Let's read the last part of this verse once again.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also the LORD gave Job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시므로”

So to speak, the Lord God duplicated or cloned the possessions of Job. 말하자면, 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복제해 주셨습니다.

Let's go to Job 1:1-3 to know the status of Job's beginning. 욥의 처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 욥기 1:1-3을 보겠습니다.

『Job 1:1-3』¹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whose name [was] Job; and that man was perfect and upright, and one that feared God, and eschewed evil. ² And there were born unto him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³ His substance also was seven thousand sheep, and three thousand camels, and five hundred yoke of oxen, and five hundred*

she asses, and a very great household; so that this man was the greatest of all the men of the east.

『욥기 1:1-3』¹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²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³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집안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Now, let's go to Job 42:12-13 to know the status of Job's latter end. 이제 욥기 42:12-13절로 가서, 욥의 마지막 상태를 알아 보겠습니다.

『Job 42:12-13』¹² So the LORD blessed the latter end of Job more than his beginning: for he had fourteen thousand sheep, and six thousand camels, and a thousand yoke of oxen, and a thousand she asses. ¹³ He had also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욥기 42:12-13』¹²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¹³ 또 그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더라.

As such, sheep doubled from seven thousand to fourteen thousand, camels from three thousand to six thousand, oxen from five hundred to a thousand yoke, and she asses from five hundred to a thousand. 이와 같이, 양이 칠 천 마리에서 만 사천 마리로, 낙타가 삼 천 마리에서 육 천 마리로, 소가 오 백 마리에서 천 마리로, 암나귀가 오 백 마리에서 천 마리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However, Job had still gotten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which were the same as before. 하지만, 욥은 여전히 일곱 아들과 세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Here arises the question.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Why did not God give Job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in terms of the number of his children?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숫자 관련해서는 이전의 두 배를 욥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It's because animals do not have a soul, so when they die, they annihilate, 그것은 동물은 혼이 없어서 죽으면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however, humans have a soul, so Job's sons and daughters who died, were still alive in paradise or Abraham's bosom. 하지만 인간은 혼이 있어서, 죽은 욥의 아들과 딸들은 여전히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Accordingly, God gave Job a perfect "duplicate" blessing in terms of the number of children.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이들의 수에 관해서도 완벽한 "두 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It is true that human cloning can never be merely a cloning of body, unlike in the case of Dolly the sheep, which was the first mammal cloned from an adult somatic cell. 인간복제는, 성숙한 체세포에서 처음으로 복제된 포유류였던 양 돌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단순한 육체의 복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It's because humans are cloned as a 'holistic person' 全人的 存在 in whom soul and body cannot be divided, that is, 'psychosomatic unity' with soul and body. 그것은 인간은 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즉, 혼과 몸이 같이 있는 단일체인 전인적 존재로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In other words, it's because another soul different from the soul of the person who donated cells for cloning, can be immanent in the cloned body. 다시 말해서, 복제를 위해 세포를 제공한 사람의 혼과는 다른 혼이 복제된 육체 안에 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Judgment 심판

Here the question may arise if human cloning takes place.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인간 복제가 일어난다면,

Does 'art and man's device' make God allow the cloned human body to have a soul? 인간의 솜씨와 고안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제된 인간의 몸이 혼을 가지도록 허락하도록 할 수 있을까?

To answer this question, let's go to Genesis 2:8-9.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창세기 2:8-9절을 보겠습니다.

『Genesis 2:8-9』⁸ And the LORD God planted a garden eastward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whom he had formed. ⁹ And out of the ground made the LORD God to grow every tree that is pleasant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the tree of life also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창세기 2:8-9』⁸ ¶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⁹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As such, there were two special trees in the midst of the garden of Eden. 이처럼, 에덴동산 한 가운데에 두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One was the tree of life, and the other was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하나는 생명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였습니다.

Adam and Eve could always see these two trees wherever they were in the garden of Eden.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 어디에 있든지 이 두 나무를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landscape as such was that God wanted them to always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Creator (God) and creation (human). 이러한 광경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제나 창조주(하나님)와 창조물(인간) 사이의 차이를 깨닫고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In other words, God wanted to show mankind that it is only God who gives life, and that the judgment of good and evil belongs only to 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은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선과 악의 심판도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셨습니다.

God would have invited Adam and Eve to the tree of life if they obeyed His word and did not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enesis 2:17) 만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나무로 초대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17)

However, they disobeyed the Word of God, as you know. (Genesis 3:6)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6)

Then, God drove out them and removed the access to the tree of life, as Genesis 3:24 say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을 치우셨습니다. 창세기 3:24절은 말합니다.

『Genesis 3:24』²⁴ So he drove out the man; and he placed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s, and a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fe.

『창세기 3:24』²⁴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Thereafter, Adam and Eve began a life of ‘sorrow’ and they became those who had no choice but to die, as Genesis 3:19b says, 이후, 아담과 이브는 슬픔의 삶을 시작하였고, 창세기 3:19b절의 말씀처럼,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Genesis 3:19b』¹⁹ ... and unto dust shalt thou return.

『창세기 3:19b』¹⁹ ...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Thus, Adam, who had died spiritually first, lived in sorrow for 930 years, giving birth to many descendants, and eventually died physically, as Genesis 5:5 says, 영적으로 처음 죽었던 아담은 930년 동안 슬픔 속에서 살며, 많은 자손을 낳았고, 결국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5:5절입니다.

『Genesis 5:5』⁵ And all the days that Adam lived were nine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he died.

『창세기 5:5』⁵ 아담의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As can be seen from the judgment of God that resulted from eating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결과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God will not hesitate to execute judgment, if the cloned human soul would get to know between good and evil. 하나님은 만일 복제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심판을 집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In other words, God will execute judgment as soon as cloned humans reach the age of accountability.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제인간이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즉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At this chance, I would like to ask you to listen to my preaching titled “Where do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if you want to know about the age of accountability. 이 기회를 빌어, 회계보고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어린 아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라는 제목의 제 설교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

The Lord Jesus tells us that judgment, unprecedented in history, will immediately come upon this world.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역사 상 유래 없는 심판이 곧 이 세상에 닥칠 것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Let's read Matthew 24:21-22. 마태복음 24:21-22절을 읽겠습니다.

『Matthew 24:21-22』²¹ For then sha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was no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is time, no, nor ever shall be. ²² And except those days should be shortened, there should no flesh be saved: but for the elect's sake those days shall be shortened.

『마태복음 24:21-22』²¹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²²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As such, the great tribulation shall occur, because it is foreordained in God's timetable. 이와 같이,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It means that the Lord Jesus will come again to punish those who do evil such as 'cloning of humans' with everlasting ruin.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간복제와 같은 악을 범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and we can know that Jesus' return is very imminent, see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signs of the end-times in the Bible appear evident.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음을,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주변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COVID-19 is one of the signs of end-times, as Matthew 24:3 & 7 says,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마태복음 24:3 & 7절이 말씀과 같이, 말세 때의 징조 중의 하나입니다.

『Matthew 24:3』³ And as he sat up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unto him privately, saying, Tell us, when shall these things be? and what [shall be] the sign of thy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world?

『마태복음 24:3』³ ¶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Matthew 24:7』⁷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 places.

『마태복음 24:7』⁷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By the way,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even if persons suffer from locusts for 5 months, they will not die, as Revelation 9:3-6 says, 한 편, 대환란 동안에 사람들이 메뚜기에게 다섯 달 동안 고통을 당하더라도 죽지 않을 것인데, 요한복음 9:3-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Revelation 9:3-6』³ And there came out of the smoke locusts upon the earth: and unto them was given power, as the scorpions of the earth have power. ⁴ And it was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hurt the grass of the earth, neither any green thing, neither any tree; but only those men which have not the seal of God in their foreheads. ⁵ And to them it was given that they should not kill them, but that they should be tormented five months: and their torment [was] as the torment of a scorpion, when he striketh a man. ⁶ And in those days shall men seek death, and shall not find it; and shall desire to die, and death shall flee from them.

『요한계시록 9:3-6』³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⁴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⁵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⁶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Let's read verse six once more. 6절을 다시 한 번 읽어 봅시다.

“And in those days shall men seek death, and shall not find it; and shall desire to die, and death shall flee from them.”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I guess that one of the reasons that they will not be able to die even if they yearn for death, might be the

result of highly developed biotechnology such as human cloning technology, genetic scissors technology, and so on.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인간복제 기술, 유전자가위 기술 등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생명과학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ere, I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ould there be any more painful times than when men can not die even though they really want to die due to the torment as of a scorpion?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This would be as if sinners were tormented in hell forever. 이것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However, we should remember that all saved souls will never enter into the great tribulation as such. 하지만, 모든 구원받은 영혼은 이와 같은 대환란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In other words, all Christians will never be left behind when Jesus comes in the air.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결코 뒤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At this chance, I would like to ask you to listen to my preaching titled "Left Behind" if you want to know about the Rapture. 휴거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 Conclusion 결론

Now, I want to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 God began His ministry of salvation for mankind who had lost eternal life.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버린 인류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 However, humans have been seeking eternal life in their own way.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방법대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3. Human cloning belongs to religious humanism for everlasting life. 인간복제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종교적 인본주의에 속합니다.
4. Thus, God will execute judgment upon those who clone human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 The Lord Jesus will come again soon before human cloning prevails. 주 예수님께서 인간복제가 성행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Psalms 100:3』³ Know ye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that] hath made us, and not we ourselve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시편 100:3』³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Revelation 14:7』⁷ Saying with a loud voice, Fear God, and give glory to him; for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and worship him that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the fountains of waters.

『요한계시록 14:7』⁷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which enables us to discern this age of biotechnology. I sincerely pray that today would be a day of salvation to those who are without Jesus and also a day of decision to come closer to you to those who are already in Jesus. In His name, I pray. Amen.